面壁觀, 망상 쉬는 좋은 약

〈면벽관〉



지안 스님의 〈선화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 선종의 시조를 보리달마(菩提達磨:Bodhi- dharma)라 한다. 선종의 전등 계보로 치면 인도로부터는 28대 조사이며, 중국에 와서 새로운 선법을 창안하였기 때문에 중국 선종에서는 달마를 초조로 삼게 되었다. 달마의 생몰연대와 중국도래 시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설이 있으나 양(梁)나라 무제(武帝) 때 중국으로 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달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어 그의 출신지를 파사국(波斯國), 향지국(香至國), 바라문국(바婆羅門國), 남천축국(南天竺國) 등이라고 하며 후대에 성립된 자료에는 그가 향지국의 셋째 왕자였다고 한다. 인도에서 제 27조인 반야다라(般若多羅)의 법을 전해 받은 후 중국으로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보림전〉에는 달마가 중국에 온 해를 527년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불교를 크게 장려하여 불심천자(佛心天子)라고 일컬어지던 양무제를 만나 무제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 준다. 무제는 은근히 자신이 불교를 크게 장려한 치적을 자랑하며 자신에게 공덕이 성취된 게 있느냐고 물었다. 왕의 이 물음에 달마는 '아무 공덕이 없다.(無功德)' 고 하였다. 유루공덕(有漏功德)을 참된 공덕으로 보지 않는 무루공덕(無漏功德)의 입장에서 한 말이다. 이때 왕과 나눈 대화는 분위기상으로 보아 매우 어색했던 것 같다. 하기야 감히 어전에서 왕의 업적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무제를 만난 이후 달마는 선법을 펼 시절인연이 여의치 않음을 알고 숭산(崇山)의 소림사(少林寺)로 들어간다. 여기서 달마가 9년 동안을 면벽을 했다 하여 '소림면벽(少林面壁) 9년' 이라 한다.

면벽(面壁)이란 좌선을 할 때 얼굴을 벽을 보고 앉는 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말이 단순히 좌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경론 등 문자에 의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관하여 깨달음을 얻는 선종의 수행법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그리하여 면벽관심(面壁觀心)이라는 사자성어가 또 생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 말을 다시 줄여 벽관(壁觀)이라 하였다. 벽관의 벽과 면벽의 벽은 그 뉘앙스가 다르다. 물론 둘 다 좌선 수행을 두고 쓴 말이지만 벽관이란 몸과 마음이 벽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떤 번뇌나 망상이 침입할 수 없는 삼매의 경지를 두고 벽관이라 하는 것이다.

〈경덕전등록〉 3권에 수록되어 있는 〈보리달마전〉에는 벽관의 뜻이 나타나는 말이 나온다. 달마가 그의 법을 이은 제자 혜가(慧可)에게 도(道)에 들어가는 입도방편을 일러준 말이 있다.

"밖으로 모든 대상에 대한 집착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牆壁 可以入道)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 〈보리달마장〉에도 벽관에 대한 설해 놓은 대목이 있다.

"만약 망상을 버리고 참된 근원으로 돌아가 마음을 통일시켜 벽관(壁觀)에 머물게 되면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 평등하여 견고하게 머물며 움직이지 않게 된다. 더 이상 문자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진리에 합치되어 분별이 없어지고 고요해져 무엇이 어떻다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경지를 '이치로 들어간 것(理入)' 이라 한다.(若有捨妄歸眞 凝住壁觀 無自他 凡聖等一 堅住不移 更不隨於言教 此卽與眞理冥狀 無有分別 寂然無名 名之理入)

이러한 문헌들의 이야기는 초기 선종에서 벽관을 매우 중시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마로부터 600년이 지난 대혜종고의 시대에 와서도 참선을 지도하는데 벽관으로써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서장〉에 대혜선사가 왕내한(汪內翰)에게 답한 편지에 벽관을 망상을 쉬는 좋은 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을 걸고 벽을 보고 앉아서 마음을 관한다고 하니 그것이 마음속의 망상을 쉬는 좋은 약입니다. 만일 다시 낡아빠진 글귀를 파고들어 근본을 알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장식(藏識) 중에 있는 시작도 없는 생사의 뿌리와 싹을 끌어일으켜 선근이 자라기 어렵게 만들고 도를 장애하는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융합하는 것이 성품이고 마음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②마음의 작용

만약 지금 나에게 싫어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 싫어하는 생각이 작용으로, 작용이 있거나 작용하기 위해서는 본체가 있어야 하는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좋아하는 생각이 본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용이 없으면 본체가 없고 본체가 없으면 작용도 없으며, 작용은 스스로 있지 못하고 자신을 인식 하지도 못합니다. 작용은 본체로 인하여 있으며, 본체로 인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본체도 이와 같습니다. 본체와 작용의 자신은 무아(無我)이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대상으로 인하여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본체와 작용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닙니다. 본체와 작용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융통하기 때문입니다. 티끌 수와 같은 모든 분별의 상대법은 본래 서로 대립하지 않고 상대성으로 서로 의존하여 있기 때문에 융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장무애(無障無碍)하여 융합하는 것이 성품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과 귀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보이는 대상과 들리는 소리가 눈과 귀의 존재를 알려주며, 보이는 대상과 들리는 소리 역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눈과 귀가 보이는 대상과 소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손가락과 칼도 자신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더듬어지는 대상과 잘리는 대상이 손가락과 칼의 있음을 알려주며, 더듬어지고 잘리는 대상의 존재는 손가락과 칼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生)과 사(死)도 서로 대상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대상으로 인하여 없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생과 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진공(眞空)이라 하고, 생과 사가 진공이 되어 서로 융통하는 것을 없는 것도 아닌 묘유(妙有)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체의 존재와 분별의 생각은 스스로 있지 못하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으로 인하여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니며, 서로 융통하여 있으므로 묘(妙)하게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들이 물질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학문이 물리학입니다. 이 시대는 발전된 과학의 연구 결과가 자주 신문, 방송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과 천문학 등에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날 KBS 2TV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코스모스 프로젝트 천체의 재구성' 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방송의 끝부분에서 발표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5% 정도는 알고 있으나 나머지 95%는 아직 모르고 있으며, 우리가 물질을 완전히 알게 된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5%는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며, 과학이 더욱 발전하면 물질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물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물질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대상인 생각과 마음으로 인하여 있으며, 생각과 마음 또한 스스로 알지 못하고 존재하지 못하고, 물질로 인하여 알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마음이 따로 있지 않고 본래 서로 융통하여 있는 것을 물질과 마음이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 물질을 알려고 한다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일체가 서로 융통한다는 것은 안다, 모른다 하는 모든 분별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무심(無心), 무념(無念)이 융통하는 것이고, 일체가 융통하면 물질이 마음이고 마음이 물질로,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 놓고 그 이름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하루

하루의 절반은 낮이요 절반은 밤이다. 절반은 빛이요 절반은 어둠이다. 하루는 길면서도 짧다. 짧으면서도 길다.

〈법구경〉에 박힌 말씀처럼 '지친 자에게 길은 멀고 잠 못 이루는 자에겐 밤이 길다.' 하루 또한 그렇다.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여 즐거운 일이 많으면 하루는 짧다. 마음이 복잡하고 몸이 불편하여 걱정이 풀리지 않으면 하루는 길다. 즐거우면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지만 슬프면 시간이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간다.

즐거운 만남에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다. 부담스런 만남에는 시간이 거북이처럼 더디다. 어머니가 타준 커피는 덤덤하지만 애인이 타준 커피는 향기롭고 신비롭다. 친구의 농담도 기분에 따라 웃을 수도 있지만 짜증이나 시비로 번질 수도 있다. 아침 기분이 설레면 하루가 빛으로 가득하다. 아침 기분이 우울하면 하루가 어둠으로 칙칙하다.

같은 음식도 마음의 변화에 따라 꿀맛일 수 있고 역겨운 맛이 될 수도 있을 빛으로 충만한 하루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어둠으로 가득한 하루도 누구에게도 머물지 않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행복과 불행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빛처럼 다가왔다가 어둠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하루를 짧게 표현하자면 물음표와 느낌표일 터이다. 간간이 쉼표와 마침표도 끼어들 수 있을 터이다.

하루를 여는 아침의 느낌, 사람을 만나는 처음의 느낌, 일을 시작하는 예감의 느낌이 쉼표로 물음표로 마침표로 오고가며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느낌과 선입견보다 대화와 이해, 배려가 있어야 삶이 풍요로워진다. 대화의 단절과 이해의 결핍은 틈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 스스로 로빈슨크루스가 되기 때문이다. 포대화상이나 산타할아버지는 전설 속에 숨어있는 게 아니다. 나누고 베풀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칭찬하고 용서하는 열린 마음에 살아 있는 것이다.

얻어먹는 짜장면 맛보다 내가 사주는 짜장면 맛이 감칠맛 나고 개운할 터이다. 칭찬하고 격려하며 대화하고 이

하루에 내 인생의 전부가 담겼다
마음 열어야 하루의 행복 찾는다

터이다. 반가운 만남이 많아 하루가 즐거울 수도 있고 맨숭맨숭한 그렇고 그런 만남이 이어지면 하루가 피로해 지칠 수도 있을 것이다.

빛(낮)과 어둠(밤)이 둘이 아닌 하나이듯이 설렘과 우울증은 마음의 울림에서 비롯된다. 행복과 불행 또한 동전의 앞뒤처럼 한 몸의 느낌 변화로 좌우된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 또한 진하듯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이다. 넘침은 부족함만 못한 것이다. 소욕지족(少欲知足)처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한다. 비우고 나누는 생활 습관으로 즐거움을 길들이며 살 일이다.

하루는 짧지만 24시간으로 짜여 있다. 하루는 길지만 순간순간의 느낌으로 윤회(輪廻)한다. 하루 동안에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다. 이용자가 될 수도 있고 이용당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사냥꾼이 될 수도 있고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다. 보살이 될 수도 있고 투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천사와 악마는 깃털의 하나의 무게로 뒤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해하며 배려하며 살 일이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어느 모임, 어떤 장소에도 미운사람은 꼭 끼어 있기 마련이다. 인생팔고(人生八苦)에는 생(生)·노(老)·병(病)·사(死)와 함께 원증회고(怨憎會苦)도 끼어 있는데 미운사람을 만나는 괴로움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운자도 보내고 나면 마음이 짠하게 아려올 터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愛別離苦) 것만이 괴로운 게 아니다. 미운 친척도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에 마음 아린 서운함이 깃드는 것이다.

하루는 짧고도 길지만 후회로 남을 일을 줄여 가야한다. 자랑으로 남고 아름다움으로 남을 추억의 바벨탑을 쌓아야 한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루의 보람과 행복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열려야 평화와 자유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낮과 밤이 반반이어야 하루인 것이다. 본래 빛과 어둠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이다. 하루에는 내 인생의 전부가 담겨있다. 마음 열고 살 일이다.



• 공단등(8cm) @3,000원
• 바림등(8cm) @3,000원
• 신공단등(8cm) @3,000원
• 황금연등(8cm) @3,5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국산 LED전구(50개) 85,000원



청도만월등 160,000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23cm (50구) @65,000
• 25cm (50구) @65,000
• 30cm (50구) @65,000
• 35cm (50구) @70,000
• 40cm (50구) @73,000
• 50cm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음양오행 만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입춘대길(大/小/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小/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6.5×23cm



입춘대길(大/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 크기 : 大 7.5×28.5cm (흰색/노랑)
小 5×19.5cm (노랑)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금지)/600원(경면)
• 크 기 : 60×7cm (빨강/노랑)
• 포 장 : 개별 봉투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cm / 9×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8.5×17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8.5×17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한지 세뱃돈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 흰색 / C : 노랑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B : 흰색 / D : 분홍 – 참 좋은 인연입니다.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